2015 04

한울타리

부산중앙교회 한울타리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눈물의 이야기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중앙교회
Busan Jungang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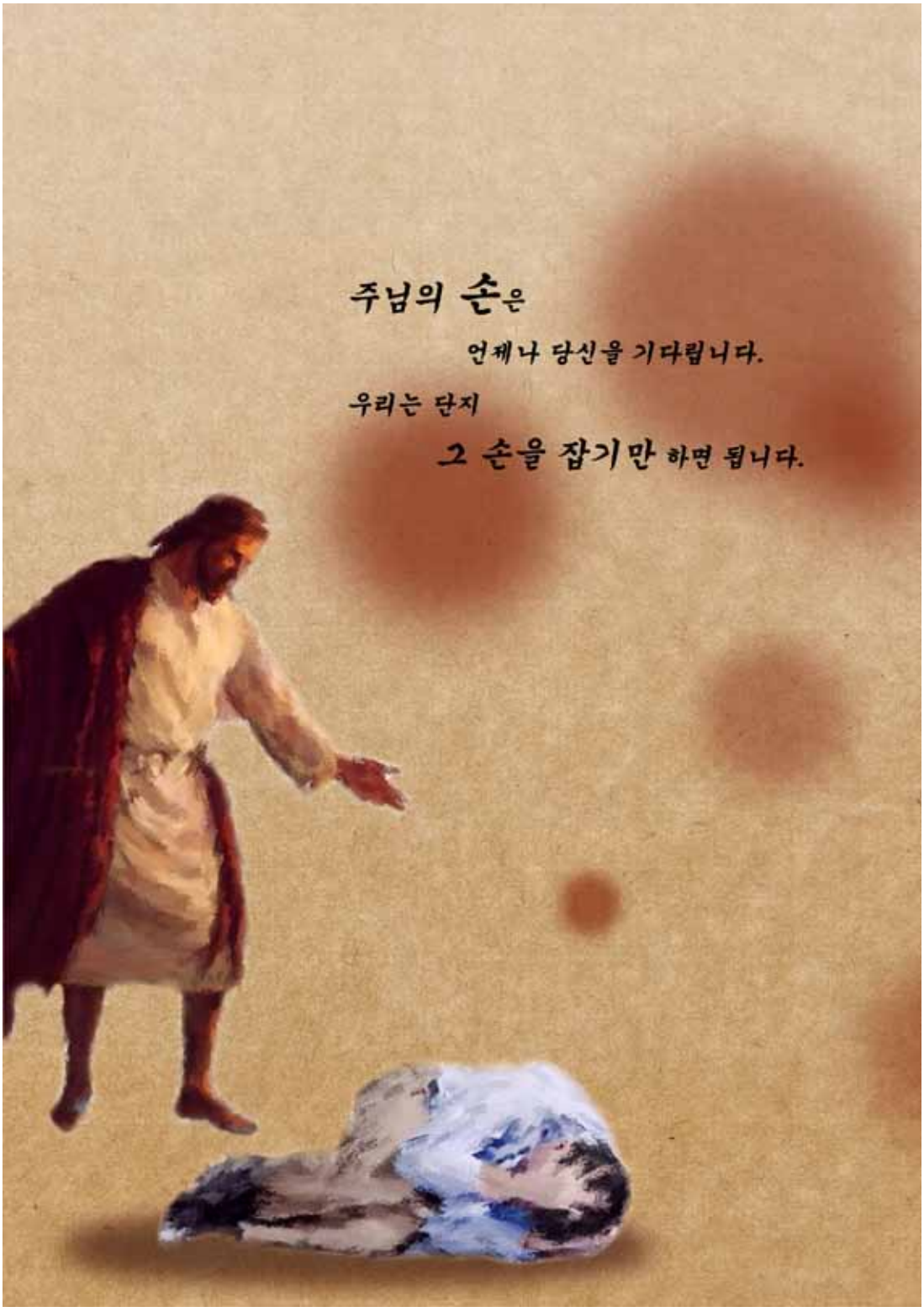


그림 **오형근**

CONTENTS

한울타리 2015년 4월 통권 6호

02 그림묵상 | 주님의 손

04 담임목사 칼럼 | 故 김광일 장로를 추모하며

06 이 달의 말씀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08 성경 속으로 | 사무엘상 1장 19~28절

10 절기소개 | 오순절

11 의료건강 | 앉아서 하는 간편한 스트레칭

12 목장이야기 | 오늘도 주님으로 충분해요
응급실에 나타난 순장님

14 기획 | 열린목장

16 기획 | 70주년행사 주일학교 글과 그림대회 수상작

20 안내데스크 | 조이코스

22 해외선교 | 태국 해외봉사

24 피플 | 한우림_최치영 결혼

25 단상 | 웰빙 밥상에 꼭 필요한 한가지

26 직업소개 | 디지털 큐레이터

28 문화 | 영화 – 신은 죽지 않았다

30 육아칼럼 | 올바른 훈계의 균형점

32 교회행사 | 3,4월

34 퀴즈 | 성경 낱말퀴즈

36 사진묵상 | 강











“故 김광일 장로를 추모하며”

- 교회설립 70주년 故 김광일장로 추모세미나를 앞두고 -



최현범 담임 목사

2013년 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개봉 한달만에 천만관객을 동원하면서 극장가에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영화에는 가공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림사건’이라는 실화가 바탕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사회전반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 노무현대통령을 암시하는 송우석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물인간이었던 이 송변호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김상필변호사에 더욱 주목하는 것은 그가 김광일장로를 암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송우석변호사 - 그는 가난과 싸우면서 상고를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가난의 한을 털어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아내와 오순도순 살아가는 소박한 행복입니다. 게다가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동창회장도 맡으면서 약간의 명예와 권력도 즐기려고 하는 소시민적인 사람입니다. 이처럼 영화에서 그리려고 하는 송변호사는 다분히 속물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을 부채질하면서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가난에 눌려있던 시절, 믿음으로 긍정적인 희망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도 낫고 잘살게 된다는 삼박자 신학의 영향이 한국교회에 컸습니다. 그 결과 믿음은 수단이 되고 잘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많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개신교인의 캐릭터가 좀 속물스러워 보이는 것이, 기분은 나쁘지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송변호사처럼 대부분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역사의 흐름에서 고립된 섬처럼 그저 자기와 가정과 교회의 틀 안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김상필변호사처럼 인권을 위해서 싸운 김광일장로입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자라서 믿음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는 당대 대부분의 교인들과는 달리 인권운동의 최전선에 서있었습니다. 서슬 시퍼런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몸 사리면서 시국관련자들의 변호를 기피하던 그때,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이를 죄인으로 만드는 왜곡된 국가권력에 항거하면서, 힘없는 자들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그는 자연히 부산 인권운동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인권운동은 정치 민주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많은 협박과 억압, 시련과 위기가 따라왔고, 그러므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교분리라는 교묘한 교리를 앞





영화'변호인' 김상필 변호사와 김광일 장로

세우면서, 불의 앞에 눈을 감고 거짓에 대항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권력의 비호아래 숨어있을 때에, 김장로님은 거룩한 분노로 불의와 거짓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분이 우리 교회의 장로였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보수교단의 자랑이고, 아니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속물적인 송우석 변호사의 모습만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인간답게 만들어준 김상필변호사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그의 행동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밝히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고 김광일장로 추모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엠네스티 활동을 통해 장로님과 교분을 가진 고신대 이상규교수님이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품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사로이 가족들을 위한 행사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요,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길을 가야하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세미나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故 김광일 장로 추모세미나

일시 **5월24일(주일) 오후4시**
장소 **부산중앙교회**

1부 예배 설교 최현범 담임목사
2부 세미나 발제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교 한국교회사)
3부 식사만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5~8



김일권 목사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중의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의 질은 줄기와 뿌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튼튼하고 좋은 줄기를 가진 포도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얻게 되며 또한 좋은 뿌리를 가진 포도나무는 백년동안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관계의 정의를 하면서 거함과 떠남이라는 두가지 큰 틀을 가지고 생명력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함과 떠남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모든 가지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통해 열매맺는 삶을 원한다면 주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119:105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5:17에서 바울은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또 언제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안에 거하며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면 이룰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이기적인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6:33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며 예수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될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안에 거할 때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것이며 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듯이 그것은 마치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마른 그 가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불에 던져 살라지는 운명에 처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라는 작업을 통해 제거됩니다. 버려진 가지는 생명력이 없음으로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난다면 결국 쓸모없는 가지가 되며 이 말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심과 더불어 결국에는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던져'라는 단어는 '그가 던져졌다'는 뜻으로 예수님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밖에 던져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예수님안에 '거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할 때 가출한것처럼 보이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들은 부모의 그늘이 싫어, 편하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부모를 떠나지만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결코 자유롭게 편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편해 보이고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화려하게 보인다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받아 열매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속으로

글 고인국 목사

본문: 사무엘상 1장 19-28절

[지난 이야기]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중 한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자 다른 아내가 질투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가진 브닌나는 혼자인 한나를 잡아 먹을듯이 괴롭혔습니다. 서럽고 힘들었던 이 자녀 없는 여인은 실로에 가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고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제사장은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위로를 얻은 한나는 더 이상 속상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 그녀의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 된 이 부부에게 동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1] 실로에 가기 전에 그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 수많은 밤들을 함께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부에게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후 가진 뜻 깊은 잠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기대는 매우 컸을 겁니다. '혹시 오늘일까?" 그런 아내를 실망시킬 수 없어 남편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 노력보다 훨씬 중요한 건 생명을 주시는 분의 결정입니다. 그들이 동침할 때에 여호와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는 그녀의 무엇을 기억하셨던 걸까요? '츠무라'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의 동의된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이다"라고 했습니다.[2] 그럼 그 "동의된 약속"은 성경 어딘가에 있겠죠. 힌트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기억했다'는 히브리어가 한나의 기도에 사용된 자신을 '기억해주세요'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

[1] 개정개역은 "생각하셨다"로 1:19을 번역했지만, 원어는 '자카르'이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기억하다'이다. 재미있게도 이것은 1:11의 반복이다.

[2] Tsumura, D T 2007.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Mich.: Eerdmans. 125.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3] 그녀의 약속은 두 가지로 요약 됩니다. 아이를 여호와께 바친다는 것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서에는 그 기도 약속에 여호와가 동의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이 동침할 때 그녀를 기억하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여호와는 '암묵적으로' 그녀의 기도 약속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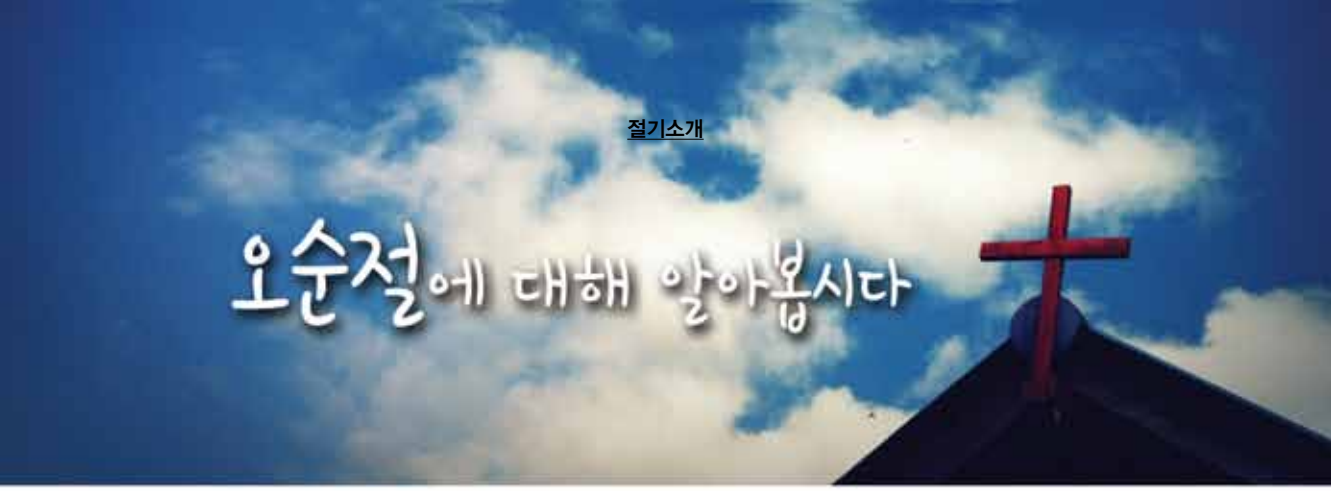
그날 한나는 임신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여호와의 기도 응답으로 확신한 그녀는 아기를 낳자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4] 젖먹이 사무엘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요즘은 보통 1년 안에 젖을 떼지만, 고대 문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3년 정도 젖을 먹여 키웠다고 되어있습니다.[5] 이 시기가 지나자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다시 실로에 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의 기도를 들을까봐 움츠러들어 목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녀는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 당당히 제사장 엘리를 찾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드린 그 기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3 쉬운성경

4 사무엘은 '사알'(요청하다)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단어들의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아들을 달라는 요청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으로 그 이름을 해석한다.

5 참고) 마카베오하 4장 27절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아홉 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삼 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 왔다"(공동번역); 이집트의 아니 교훈집(Instruction of Any) 역시 3년의 젖먹이 기간을 전한다.



오순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창 곡식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 성경시대로 말하자면 칠칠절의 시기가 된다. 그리고 히브리력으로 시반월 여섯 번째 날(2015년 양력으로는 5월 25일)이면 오순절이 된다. 오순절이란 농사적으로 모든 곡식 추수가 마쳐지는 시점이고 절기적으로는 개인의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오던 칠칠절이 마쳐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오순절 행사는 농사적인 성격과 절기적인 성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전에서 대표성을 갖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곡식 추수가 마쳐진 것에 감사드리며 밀로 된 빵 두 개를 만들어 예식을 진행했다. 이 두 개의 빵은 각각 십분의 일 에바의 가루로써 따로따로 반죽되어졌고 또 따로따로 구워졌다. 반죽은 느긋하게 진행했다. 왜냐하면 모든 추수를 마쳤다는 표현이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어 누룩이 생기기도 하는데 오순절의 두 개의 빵은 번제단에 드려지는 용도가 아니라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제사장들이 나눠먹으면 되는 용도였기 때문에 누룩이 생긴다 해도 상관이 없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께서 이 오순절 사상을 다시 일깨우시는 장면을 발견 할 수 있게된다. 분명 사탄의 도전은 '빵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 4:4)

신앙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찌 보면 빵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경은 사고방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오순절의 참 의미가 될 것이다.

*** 올해는 5월 25일이 오순절 입니다.**

[출처] 배경으로 읽는 성경 절기

앉아서 하는 간편한 스트레칭



출처_울주군보건소

오늘도 주님으로 충분해요 이현옥 목장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5층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주간 직장에 다니면서 바쁘게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긴장으로 살아 온 이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한 분을 믿고, 주님 한 분을 따르고,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며 지내 온 날들이 집합하였습니다.

오늘 찾아 간 곳은 순원의 절반은 결혼을 하였고, 또 그 절반은 미혼인 직장인들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현옥 순장님의 목장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눕니다. 서로 기도로 힘이 되기에 순원들 간의 연대가 더욱 끈끈하게 다가옵니다. 친구의 소개로 믿게 되어 교회를 등록하고, 조이 코스를 거친 후에 학습과 세례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순원을 돕고 지켜보는 것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목장 교재를 나누면서 순원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순원들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실가운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실감합니다.

3월의 끝.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주시는 계절의 변화를 축복으로 여기며, 순원들의 올 한 해 소망을 담아 봅니다.





권금환–건강을 지켜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며, 아들 전수가 교회에 잘 다니고 학교생활 가운데 좋은 친구 만나서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박성숙–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주소서. 특히 부모님께서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민경–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가정을 세워 주소서.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 지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소서. 또한 하루에 30분씩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심경미–가족의 건강과 형상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연미–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또한 가족 모두가 성경을 일독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정숙–건강과 자아를 찾아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성숙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증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정혜–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옵소서. 기도가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현옥(순장님)–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진신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직장의 일과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고 죽는 존귀한 역사가 이 몸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이현옥 순장님의 목장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을 굳게 믿으며 오직 한 분으로 충분한 세계로 갑니다.

글 _이현옥 정리_표임두

응급실에 나타난 순장님

"순장님 순장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저보다 언니 같아요" 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에서 목장 순원들을 챙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맡은 일과 믿음 생활에서의 헌신과 삶을 통해 실제로 저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장 순원 중 한 분이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혼자서 병원을 가지 못하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순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순장님은 급히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치료할 동안 아기도 돌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물질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목장 순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영적 카리스마에 절대 순종하여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 사역 훈련까지 받도록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장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분의 반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모범삼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2015 열린목장

목장별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목장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목장초청












목장소성


목장초청 잔치



교회설립70주년

주일학교 글과 그림대회 수상작

그림

유치, 유년 / 최우수: 박연우, 우수: 김민영
장려: 이서현, 김다엘, 임하은, 이성은, 임수아, 정우진, 이효은, 김보민, 박제은, 장민찬
초,중,고 / 최우수: 손가희, 우수: 최설화
장려: 김금비, 신주호, 이승현, 김주경, 정보경, 김건우, 송유진, 윤동규, 김민준, 조이례

글

유,초 / 최우수: 조민서, 우수: 이예나
장려: 박하은, 윤영규, 권혁, 윤예담, 오주안, 이성아, 민수연, 윤소은, 김유진, 조윤아, 백수현, 정명철, 윤예람
중,고 / 최우수: 구영인, 우수: 서가인
장려: 송형민, 윤재원, 박선보, 조요한, 안현지, 김예인, 오예준

유치부6세 박연우
(유치유년부 최우수)
▼



[시] 교회가 나에게 준 선물

초3 조민서 (유초등 최우수)

나의 단짝 은성이도
교회가 나에게 준 선물.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도
교회가 나에게 준 선물.

나의 머리 속에 하나님도
교회가 나에게 준 선물.

나의 교회 목사님, 선생님도
교회가 나에게 준 선물.

교회가 나에게 준 선물은
많이 있지만 내가 교회에게
준 선물은 없다.

무슨 선물을 교회에게 주지?



▲초5 손가희
(초중고 최우수)

유치부7세 김인영▶
(유치유년부 우수)



[육행시] 부산중앙교회

고2 구영인 (중고등 최우수)

부 부족하고 가난한 나를
산 산 제사로 드려 마음
중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앙 앙상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교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회 회상 되어지는 추억만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고2 최설화
(초중고 우수)

[수필] 터닝포인트 부산중앙교회

고2 서가현 (중고등 우수)

아직 긴 시간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18년동안의 내 삶은 두 부분으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부산중앙교회를 만나기 전과 그 후라고 대답할 것 같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이다. 부산중앙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5년전. 13살 때이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

첫째는 그저 친구에 불과하던 아이들을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준비해두셨다. 이들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교회에 발을 붙이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다. 또 그들과 함께 나누며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할 만큼 성장 시켜주셨다. 또 내가 만난 다른 동영자들은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은 행동으로, 말로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선생님들의 삶을 직접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 부산중앙교회는 내게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레 은혜와 이전의 하나님 없던 삶으로부터의 자유함까지 주셨다. 이러한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주신 정말 큰 은혜임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도, 내게 주신 이 보금자리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신앙을 가지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더라도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 어느것도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부산중앙교회가 내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눌 기준점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변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소설] 준비

초6 이예나 (유초등 우수)



벚꽃이 마구 휘날리는 날. 그리고 일요일.
“오늘도 역시 교회에 가야하려나.” 라며 희미하게 한숨을 쉰다. 내가 사는 곳과 그 교회, 부산중앙교회는 가는데 약 1시간의 시간이 든다. 지금 시간 9시. 교회에 도착해 준비하려면 9시 30분 쯤에 출발을 해야 한다. 지금 재빨리 준비를 해야만 한다. 끄응, 하고 낮게 신음 소리를 내곤 곧 화장실로 향한다. 세수와 양치, 샤워, 옷을 갈아입는 것과 밥, 평소에 나라면 1시간 이상이 걸릴 일. 부산중앙교회에 도착을 할려면 최대한 시간을 잘 나누는 것이다. 시간이 최대한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평소대로 느긋하게 움직이면 분명히 늦을테니까 제대로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빨리 옷을 준비해놓고 샤워실 안쪽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다. 그 다음은 밥. 급하게 먹다 ‘켁’ 하고 사래에 들렸지만 급히 물을 마시고 끝을 냈다. 현재 시각 9시 20분 앞으로 10분이다. 이 10분을 잘 쪼개내어 양치와 다른 무언가들을 끝내야 한다. 밥을 늦게까지 먹어버렸기에 9시 24분. 6분 남았다. 그 시간 안에 최소 3가지를 끝내야 한다. 양치와 강아지 2마리들을 챙겨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인 버스가 오는 시간에 잘 맞춰 타는 것이다. “매주 이러네...” 라고 거울을 쳐다보며 나 자신에게 말한다. 양치는 서둘러 끝냈고 강아지들도 잘 챙겨주었다. 남은 것은 버스 시각. 아마 서둘러 안 내려간다면 버스는 놓칠것이므로 엘리베이터는 포기. 계단으로 뛰어내려간다!
“우리집은 5층이니까 괜찮겠지 뭐...”라고 중얼거리며 내려오는 바쁜하루. 나 정말 뭐하는 걸까.. 오늘도 열심히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열심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하...망했어.”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내가 아파트 정문을 지나 뛰어가고 있을 때만 해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던 버스가 내가 정류장에 발을 내딛기 바로 전에 출발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다음으로 버스가 오는 시각은 ‘10시 23분 도착 예정’ 이라고 써있으니... 정말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할 수만 있다면 초능력, 아니 마법이라도 부려서 버스를 부르고 싶다. 지각일 거다. 완벽한 지각. 이젠 다 포기할까. 내가 갔을 땐 거의 끝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실망해 있는데.. 씽~씽~ 꼬마버스 타요가 나타났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앤 뭐야. 구원의 손길이 뻗어졌다. 역시 하나님.
“늦는다고! 우회전! 아니 우회전!” 꺅꺅대며 소리를 지른다. “지금 10시 정도이니까 갈수있어! 자, 쭉 달려!” 이런 저런 핑계로 교회를 빠진다니, 그럴 순 없으니까 창문을 열곤 한껏 바람을 쐬곤 다시 내 옆 그 아이에게 말을 건다. “앞 차에 박겠다. 조금 천천히”라고 명령을 하자 ‘뭐야 너, 난 네 운전기사가 아니라고’라며 투덜대는 그의 모습이 눈에 비쳤다. “흥. 길 알려주지마?” 라며 비웃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앞으로 17분 안에 부산중앙교회에 갈수나 있을까. 옷도 제대로 챙겨입고 나왔는데 말이야..
“흐악, 10분 남았어! 빨리 빨리!”
‘시끄러! 하고 있잖아! 좀 조용히 하라고! 도대체가 정말! 라디오냐! 계속 빽빽대고?! 그, 금방이라고!’ 나 이 애 믿어도 되는 걸까? 솔직히 모르겠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태평하게 편의점까지 들렀어. 뭐하는 걸까 이 애는 ...“꺄?! 7분! 7분 남았어!”, ‘어?! 뭐라고?! 7분?!’ 깜짝 놀라 되물어보는 그에게 친절히 시계를 보여주었다. 화들짝 놀라며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자자, 어서 하라고?!”
세이프. 지금은 10시 58분.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아슬아슬 했다고 해야하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서둘러 앉아 오늘과 다음주를 위한 기도를 하나 둘 하며 오늘 일을 되돌아보고 살짝 웃음이 나왔긴 했지만 안전하게 올 수 있던 것과 그 아이를 내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조이코스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37-38

오랫동안 '조이코스'를 섬겨 오신 충무 이정란 권사의 말을 들어 보자.

권사님, '조이코스'에서 조이는 영어의 Joy인 기쁨을 뜻하나요?

네. 이중적인 의미를 두었습니다. 말씀하신 기쁨의 뜻에 앞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의 약자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안에서 다른이들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내가 있다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답니다.

조이코스를 한 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새가족 교회 정착 프로그램이자 전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이코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새가족의 안정적인 교회 정착과, 초신자 그리고 비신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이코스의 세부 진행 내용을 알려 주세요.

전체 7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4회를 하려고 합니다.

☐1주. 기독교 -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이 없을까?
☐2주. 예수님 - 그는 과연 누구시지요?
☐3주. 도대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지요?
☐4주. 어떻게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5주.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을까?
☐6주. 어떻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 주말수양회(연 1회)
☐7주. 교회는 무엇인가? / 수료식



조이코스 참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과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기존 교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조이코스 섬김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토크를 진행하시는 최현범 담임목사님으로부터 고문이신 박갑명 장로님, 담당교역자 윤은수 강도사님, 총무와 회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각 조별 리더와 섬김이, 전체 진행을 위한 전체 섬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분 정도가 조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조이코스의 섬김이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매년 초에 섬김이를 임명하여 1년 단위로 섬기고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의사를 밝혀 주시면 결원이 생길 때 연락을 드립니다.





조이코스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이(코스)는 짧은 시간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부산중앙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지만 낯설고 소속감이 없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하던 게스트들이 조이에 참여하고 2-3주가 지나면 표정이 밝아지시며 모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7주가 되어 수료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합니다. 조이코스의 유익성을 수료자들께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이를 수료하신 분들이 목장이나 일대일양육으로 잘 연결되도록 도와 드리고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시고도 여러 사정으로 조이코스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 여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5기 조이코스 게스트모집

신청: 5월3일까지
기간: 5월10일 ~ 6월21일, 7주과정(매주일 오후1:00~2:30)
대상: 새신자, 지루하고 거짓말 같은 기독교가 궁금하신 분 누구나



태국해외봉사

설날 연휴기간 동안 태국 코랏 지은재선교사 사역지에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기간: 2015년 2월16일(월)~2월24일(화), 8박9일
주요사역: 의료사역 176명 / 어린이사역 565명 / 이미용 72명 /
전도 약1300명 / 총동원 90명(성인20/학생70명)



쩌허중앙센타에서
쩌허중앙교회로
부산중앙교회의 태국
지교회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작년 태국 봉사 때 오카리나를 배운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연주실력을 뽐내었습니다.














ศูนย์กลางนิมิตจอหอ

한우림 ♡ 최치영

한용호안수집사_김영숙B권사 장녀

작년 겨울, 외숙모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천안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매우 바쁜 생활을 하다가 3일 간의 휴가로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어색함 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화를 하는 내내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다시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또 만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차로 바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주중에는 항상 연락하며 서로의 생활과 생각들을 공유하였고 주말에는 만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만나는 내내 치영 오빠는 참 편안하고 자상하며 늘 저를 존중해주었기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저를 걱정해주고 저에게 고마워해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학교로 몰래 꽃바구니를 선물해 주는 등 로맨틱한 오빠의 모습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는 예의가 바르며 어른들께 잘하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를 존중해 줍니다.

양가 부모님께 서로 인사를 드린 후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자상하시고 저를 예뻐해주시는 아버님, 어머님을 직접 뵈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오빠의 내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제가 기도해왔던 배우자 기도 제목들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책임감 넘치는 치영오빠와 함께라면 결혼해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지혜롭고 예쁜 딸 하나, 듬직하고 똑똑한 아들 하나. 두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말부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웰빙 밥상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글_윤화영

웰빙 바람이 거세지면서 '웰빙 상식'들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웰빙을 위한 식품과 약품,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보가 넘쳐난다. 자칫 그 수많은 웰빙을 따라하다가 지레 늙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그런데 그런 웰빙살이의 눈물겨운 노력들을 맥빠지게 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최근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매일 햄버거와 감자 튀김을 먹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실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다. "다양한 종류의 암 발병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 중 3분의2가 유전이나 음식 등의 위험한 습관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웰빙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란 말인가.

한편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심장의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폴 밀스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심장 질환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정신은 물론 신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웰빙 밥상이 웰빙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었나?

크리스천의 신앙 습관 중 하나는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음식을 만든 이와 농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차려진 식탁이야말로 메뉴에 상관없이 웰빙 식단인 셈이다.

웰빙을 웰빙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주신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빌리빙(Believing)이다. 빌리빙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웰빙 식단이고, 나아가 영원히 살게 하는 신비한 묘약이다.

디지털 큐레이터

글_민경욱

큐레이터에 대해 한 번씩은 들어 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는 바처럼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의 컨셉과 주제를 정하고 작가 섭외, 작품 수급 등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는 기획가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앞서 호에 언급했듯이 빅데이터의 시대다. 넘쳐나는 정보들을 카테고리나 주제에 맞게 분류하고 연관성 있는 그룹으로 묶는 작업을 하여 알기 쉽게 보여지게 하는 일, 즉 큐레이션(Curation)을 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큐레이터(Digital Curator)"라고 한다.



'Curation(큐레이션)'은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큐레어(cur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의 'care'를 뜻한다. 큐레이터가 전시 아이디어의 도출, 작품 진열과 설명, 홍보물 제작 및 철수까지 일련의 일을 하는 것처럼 디지털 큐레이터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재편집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여 콘텐츠를 유익하게 한다. 콘텐츠를 잘 케어(care)해서 더욱 가치 있는 정보가 되도록 생기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디지털 큐레이터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한 글의 게시나 공유가 바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직으로 큐레이션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있을 뿐이다.

네이버, 다음 그리고 큐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레스트미가, 해외 서비스로는 페이스북, 플립보드, 텀블러, 핀터레스트가 대표적인 디지털 큐레이션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고객의 성향과 기호에 맞게 정보와 기사를 큐레이션하고 있다. 필자도 자주 쓰고 있는 페이스북의 경우를 보자.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개인의 데이터 사용 내용을 분석해서 그가 선호하는(본인이 정하기도) 정보와 기사를 보기 쉽게 걸러서 보여 주거나 친구를 맺은 이의 포스팅을 화면에 적절하게 보여 준다. 이것이 큐레이션이다. 네이버는 스마트 폰 상에서 (그들의) 앱을 통해 언론사들의 뉴스를 큐레이션 하는데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앱 환경과 이용자의 성향에 맞게 재편집해서 보여 주고 있다. 핀터레스트의 경우는 글 보다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비주얼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한창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의 대중화 등 미디어 시대이기에 폰과 사물(기기)의 특성에 맞도록 그 안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개개인에게 알맞게 가공되어 가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하기에 큐레이션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졌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개인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개인 디지털 큐레이터'가 탄생할 거라고도 하니 그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시대는 변화했다. 원래의 뉴스 기사나 콘텐츠의 질 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필터링 되어 가치 있는 정보로 개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가가 디지털 큐레이터의 일이자 가치가 되었다. 디지털 큐레이터를 꿈꾸고 있다면 자신만의 관점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유익한 정보로 재가공할 수 있도록 개인적 소양을 키우며 글과 사진 및 자신의 재능으로 창의적 표현을 해 나가며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보를 왜곡시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유해 콘텐츠로 청소년을 멍들게 하는 요즘과 같은 미디어 혼탁의 시대에 바람직한 인성이 바탕이 된 디지털 큐레이터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그리스도인이 꼭 봐야할 영화

『GOD'S NOT DEAD』

목장 식구들과 같이 볼 만한 영화 없을까? 하고 인터넷을 뒤지다 '신은 죽지 않았다' 란 영화의 제목에 눈길이 가게 되었답니다. 영화는 로스쿨 지망생인 대학 신입생(조쉬)이 교양과목인 철학개론 수업을 신청하면서 겪는 얘기랍니다.



수업 첫 시간 담당교수(제프리)가 칠판에 서양 철학자들의 이름을 빼곡이 적어 놓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어냐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자 담당교수가 모두다 무신론자들 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흰 종이를 학생들에게 나눠 주면서 거기다 'GOD IS DEAD' 이라고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수가 시키는 대로 적어 제출하지만 크리스챤인 조쉬는 머뭇거리다 자신은 크리스챤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원하는 글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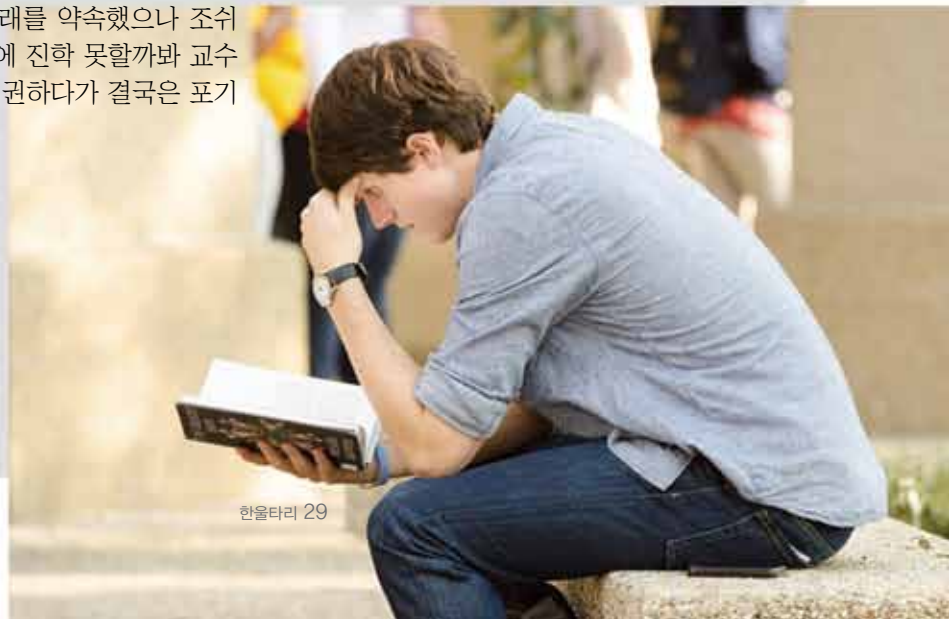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려 단단히 화가 난 담당교수가 앞으로 20분씩 3번의 기회를 줄 테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성적의 30%를 깍아 낙제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며 이도저도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수강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조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고민하다 텅빈 교회당에 발걸음이 닿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목사님께서 조쉬의 고민을 듣고 '담당교수가 시키는 대로 남들처럼 적어내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강신청을 철회하던지 그러지 않고 네가 여기 있는 걸 보니 네 마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픈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시며 마태복음10:32~33과 누가복음12:48 말씀을 읽어 보라고 합니다.

조쉬는 집에 가서 성경구절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증거해 보겠다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조쉬에게 주어진 3번의 기회 중에 첫 번째 시간 조쉬는 강단에 서서 교수와 학생들 앞에 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피고로, 교수는 검사로, 자신은 변호인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배심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합니다. 20분간 3번의 기회에 주어진 시간에 다양한 이론이 오고갑니다. 대학 강단에서의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인지라 스티븐 호킹의 우주론도 나오고 다윈의 진화론, 빅뱅 이론,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에 대한 논쟁이 오고갑니다.

'GOD IS DEAD'이라고 적어 낸 8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주인공은 어떻게 풀어 나갈까 무척 궁금했었는데 이름만대도 알 정도로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논리에 대해 주인공이 유신론자 과학자와 철학자들의 이론을 접목하여 조목조목 대응하며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을 때는 맥박이 빨라지며 가슴이 두근거렸 답니다. 영화에는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송충이 씹은 표정을 짓는 지식인들, 교회 학생회에서 만나 장래를 약속했으나 조쉬가 낙제를 받아 로스쿨에 진학 못할까봐 교수가 시키는 대로 쓰라고 권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가는 조쉬의 여자친구, 그리고 3번에 걸쳐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 묻자 자리에서 80여명의 학생 중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얘기도 있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대학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40여건의 소송이 있었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월가의 잘 나가는 투자 중개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병문안 와서 '어머니는 평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셨는데 이렇게 치매에 걸리셨고 그에 비해 하나님을 모르는 나는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독백을 합니다. 그러자 영화 속에서는 정신이 잠깐 돌아온 치매 어머니의 입을 통해 '사탄은 가급적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한단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글_박문태 집사





올바른 훈계의 균형점

글_강희정 사모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올라가는 것을 참고, 심호흡에 숫자까지 세다가도 결국 딱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아이의 등을 때린 후 돌아서서 '좀 더 참을 걸' 하며 후회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며 키워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며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어느 편을 선택하든 현실 속 상황은 녹록치 않고 아이의 훈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모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무엇이 바른 교육방법이며 정답인지는 사실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혹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또 다른 고민거리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올바른 훈계의 균형점은 무엇일까요. 잠시 매를 드는 훈계의 양면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아이가 떼를 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안쓰러워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휘둘려버리면, 아이는 옳은 가치와 규정들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향이 강화됩니다.
이 통제의 수단으로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회초리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를 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성실히 징계해야 하고(잠 13:24), 몸이 아프도록 때리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깊은 곳까지 새겨져 아이의 어리석음과 악을 내어 쫓기 때문(잠 20:30; 22:15)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는 다원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고 상대적인 가치는 모두 옳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도 희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때려서라도 가르칠 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아이의 영혼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스올에서 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잠23:13-14).

하지만 동시에 매를 드는 부모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의도에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은 단지 쉬운 방식에 익숙해진 어른의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리거나, 큰 소리로 화를 내는 행동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무서우면 깜짝 놀라게 되고 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행위를 일단 그만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편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아이를 때리거나 야단치게 되면 아이는 더 나은 문제해결의 방법과 자기절제를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때문에 아이의 행동은 제한하더라도 마음은 받아주어야 합니다.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면서 다루는 법을 배워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적절히 제어가 필요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허용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란 억압하면 성숙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희초리와 강압적인 통제는 부모 입장에서는 편하고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고 빠르지만, 정작 아이가 스스로 배워야 할 감정컨트롤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엔 아이를 두려움에 묶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임상심리학자 토니 험프리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훈육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무조건 때리는 것도,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답이 아닌 훈계, 믿음 안에 올바르게 자라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 날마다 그 길을 지도 하시는(잠3:6)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행사 2015년 3,4월

3.12(목) 실버대학 개강

3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14주 일정으로 실버대학이 개강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65세 이상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3.15(주일) 태국선교보고

◀ 간증 보기

3.26~ 열린목장 시작

목장별로 게스트를 초정하여 잔치를 여는
열린목장이 목장별로 시작되었습니다.



3.30(월)~4.3(금)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

◀ 담임목사 설교보기



4.3(금) 고난절예배

◀ 담임목사 설교보기

4.5(금) 부활절

◀ 담임목사 설교보기



부활절칸타타(호산나)

◀ 칸타타 보기

4.11(토) 70주년 주일학교 글과 그림대회

4.12(주일) 학습세례식

4.12(주일) 조이코스14기 종강

15기 조이코스 게스트모집 : 5월3일까지
5월10일 ~ 6월21일, 7주과정(매주일 오후1:00~2:30)
지루하고 거짓말 같은 기독교가 궁금하신 분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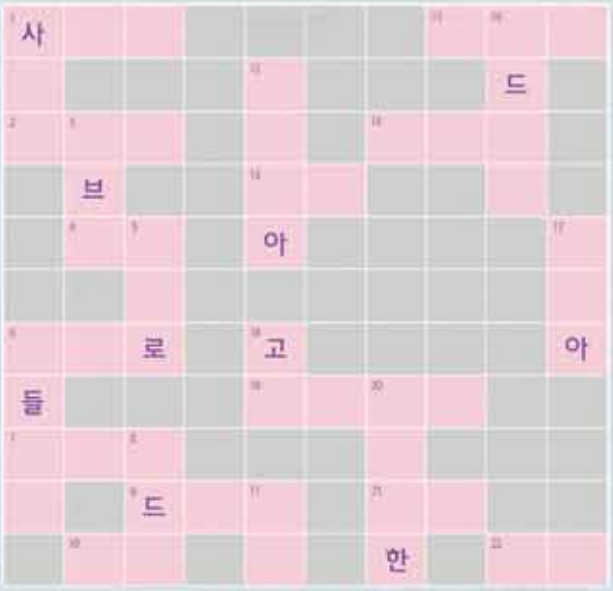
4.16(목) 실버대학 봄소풍

경주 첨성대 유채꽃밭과 경주타워,
엑스포공원에서 구경도 하고
게임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4.26(주일) 새생명축제





성경 낱말 퀴즈

성 명 :

휴대폰 :

* 성경공부함에 5월 17일까지 넣어주시면,
5명을 뽑아서 아이스크림교환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지난호 당첨자
유혜승, 명지휘, 조윤정, 정매리, 황보경

가로 열쇠

1. 고린도전서 13장 = □□□
2. 길르앗의 디셉 출신의 선지자로 갈멜산에서 이방 신의 선지자 850인과 홀로 담판 승부를 겨루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선지자 (왕상 18:40)
4.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을 행하신 곳 (요 2:11)
6. 예수님의 수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제자 (마 16:16)
7. 모세오경 중 세번째 책. 각종 제사법과 규례,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해 기록되어있다.
9. 랍비돗의 아내로 이스라엘 여자 사사 (삿 4:4)
10. 다윗이 수도로 삼은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표현하기도 함.(대하 5:2, 시 132:13-14)
13. 엘리사를 공궤했던 여인(지역명,□ □ 여인) (왕하 4:8)
14. 엘리야의 제자로,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 (왕하 2:9)
15. 노아 대홍수 후 노아 후손들이 바벨 땅 시날에 건축물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하시므로 건축이 중단된 사건 (창 11:9)
19. 살렘왕,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브람의 노획물 중 십분의 일을 취하고 복을 빈 제사장 (창 14:20)
21. 아밋대의 아들이며 선지자로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삼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람 (욘 1:17)
22.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 )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약 3:17)

세로 열쇠

1.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로 태어나 젖을 땐 후 하나님께 드려져 성전에서 자랐으며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삼상 1:20)
3. 이삭의 아내 (창 25:20)
5.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죽은 지 나흘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 (요 11:43)
6.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마 2:1)
8.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사 (삿 6:11)
11. 야곱의 아내이며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 (창 30:22-24)
12. 눈의 아들,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신 31:23)
16. 바벨론 포로시절,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붙여줬던 바벨론식 이름 (단 1:7)
17. 가룟유다 대신 제비뽑아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한 사람 (행 1:26)
18.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취한 아내 (호 1:3)
20.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으며 선지자 이사야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언한 사람 (요 1:23)

담임목사 최현범

교회의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주일예배
1부 9:00 은혜홀(2층)
2부 11:00 은혜홀(2층)
3부 13:30 은혜홀(2층) 청년과함께

수요예배
오후 7:30 은혜홀(2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아가페홀(지하)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5:30 아가페홀(지하)

주일학교
영아부 11:00 본당3층 영아부실
유치부 11:00 교육관1층
유년부 11:00 교육관4층
초등부 11:00 교육관3층
중등부 11:00 수련관1층
고등부 11:00 교육관5층

사무실 051) 624-4554
교역자실 624-6046
담임목사실 624-6050
중보기도실 624-0924
어린이집 624-6047
팩 스 624-4555



표지사진 새생명축제 생명나무

담임목사 설교방송
부산극동방송(FM 93.3MHz)
수요일 오후2:30~3:00
부산CBS라디오(FM 102.9MHz)
토요일 오후1:30~2:00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42

홈페이지
www.ejoongang.or.kr

발행처 부산중앙교회
발행인 최현범 담임목사
편집장 윤화영
기획 김지연
취재, 에디터 민경욱,표임두,
박문태,강정원,강희정,오용진,
고인국,윤은수,이성웅
교정 이주선
디자인 서보라, 신예은
로고 김진아
그림 오형근 **사진** 오정훈
영상(사진) 김지연,박경수,
김동현,김형미

강(江) 이해인 詩

지울수록 살아나는
당신 모습은

내가 싣고 가는
평생의 짐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여울지는
끝없는 강물

흐르지 않고는
목숨일 수 없음에

오늘도 부서지며
넘치는 강입니다.

사진 **오정훈**



멈추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강물이 흐르듯 멈추지 않고 날마다 내가 부서져야 합니다.